계급 위치별 개인적 연줄망의 결합 범위와 계급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양적 접근*

Class Locations, Social Networks of Individuals and Class Formation in Cheju Island : A Quantitative Approach*

김 석 준**

目 次

Ⅰ. 머 리 말
Ⅱ. 이론적 배경과 관련 연구의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요약과 맺음말
〈참 고 문 헌〉

Ⅰ. 머 리 말

개인의 연줄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희소가치의 획득과 기득권의 유지에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한다. 그간 우리 사회가 경험해온 산업화와 도시화의 효과인 서구적 합리주의의 일상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로서 혈연 · 지연 · 학연의 연줄이 지닌 위력은 도처에서 감지된다. 공동체 해체론자들의 주장에 반증이나 하듯 그러한 인연들로 교직된 연결망 곧 연줄망은 여전히 개인적 또는 집단적 목표의 달성을 매개하며 유효한 상향적 사회이동의 기제로도 작용한다(김진균, 1983; 문석남 외, 1990; 김문조 · 박형신, 1991).

특정 계급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들도 생산현장 내 · 외부에 걸쳐있는 이러한 연줄망과 더불어 일상을 영위한다.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자본가와 노동자의 위치가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면, 개인의 연줄망은 일상 속에서 계급경계를 넘나들며 형성될 수 있다. 작업장의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연줄망의 결합범위는 개인의 형성동기에 따라 계급경계 내에 머물거나 초월하면서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다양한 한계를 가질 수 있는 가변적 성격의 것이다(김선업, 1991; 김용학, 1992).

이처럼 그 범위가 가변적인 개인적 연줄망은 특정 계급위치에 속한 개인의 계급의식과 행동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관련, 곧 연줄망이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의 두 전략인 배제(exclusion)와 찬탈(usurpation)의 적절한 기제일 수도 있고(Parkin, 1979), 작업장 내부에서는 동의제조(manufacturing consent)를 위한 실질적 설득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Burawoy, 1979). 나아가 특정 연줄망과의 접촉은 어떤 이념의 수용과 의식의 전환·형성과정인 이데올로기적 개종의 중요한 분절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정수복, 1994). 그러므로 연줄망과의 결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계급론적 효과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1]

그러나 종래의 연구들은 대부분 등급화 모델(gradation model)의 계층 개념을 통해 연줄망의 의미를 검토하는 데 치중해왔다(Bott, 1955; Granovetter, 1982; Fisher, 1982; Marsden, 1987; Lin, 1990; 김선업, 1991). 최근의 몇몇 연구(예를 들면, Wright and Cho, 1992; 신광영·조돈문, 1994)가 관계적 모델(relational model)의 계급 개념과 연줄망의 연관을 따져보기 전까지는 그러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에 비할 때 관계적 모델에 입각한 후자의 연구들은, 사회적 분업구조를 반영하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계급형성의 구조적 조건이 주어진다면, 연줄망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의 하나로서 계급형성의 가변성을 결과할 매개변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은 궁극적으로 왜 동일한 계급위치를 차지한 개인들이 일관되게 동일한 계급이해나 의식을 공유하지 않으며, 집합적 행동에 나서지 않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제공가능한 해명의 하나를 점검해보기 위해 채택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지금의 이 글은 관계적 모델의 연구들과 그러한 시각과 입장을 일정하게 공유하면서 개인이 일상 속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인 연줄망의 성격이 계급의식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삼아 경험적으로 접근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기존의 관계적 모델에 의한 연구결과들을 일부 반복하면서 보완·연장하려는 의도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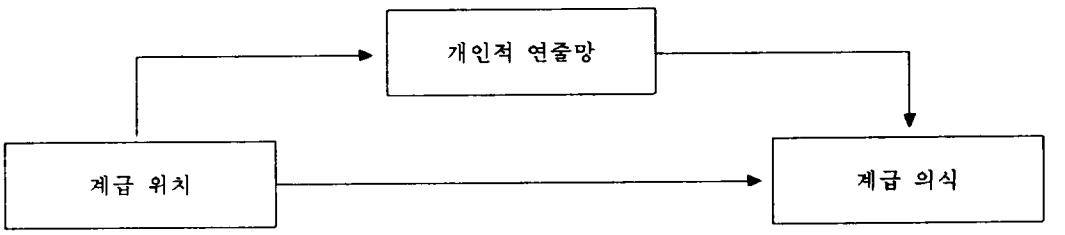
1) 계급분석에서 연줄망의 의미를 검색해야할 필요성은 이미 사회학의 고전시대부터 시사됐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Marx의 경우 특히 노동자의 즉자적 계급에서 대자적 계급화를 가져오는 계기들을 논하는 데서(Bendix and Lipset, 1966), 그리고 Weber(1978)는 계급과 지위, 파당(party)을 구분하면서도 삼자의 중첩가능성을 중시한 대목에서 그 실마리가 엿보인다. 이는 근래의 맑스주의자와 베버주의자들에게서 계급과 연줄망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자원이 축적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Marx의 그러한 계기들에 대한 관심이 Thompson(1963), Katznelson and Zolberg(1986) 등의 계급형성론적 접근을 파생시켰고, Weber의 논의는 Parkin(1979)의 '사회적 폐쇄론(theory of social closure)', Giddens(1974)의 계급구조화론 등을 결과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Marx와 Weber의 후예들에게서 두 고전이론가의 주장들이 혼효되어 있다는 평가(가령, Abercrombie and Urry, 1983; Burris, 1987)와 관련해서도 연줄망 분석의 계급론적 의의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과 관련 연구의 검토

이 글의 이론적 분석 틀은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과 과정적 접근(processual approach)이라는 계급분석의 대표적인 두 접근방식의 관계를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전망(김석준, 1992; 안치민, 1992; 신광영 · 조돈문, 1994)에 기초해 구성된다. 구조적 접근은 사회적 분업 구조와 관련하여 생산의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위치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위치와 개인을 개념적으로 구분한 후 계급을 개인들에 의해 채워질 사회구조내의 비어있는 공간으로 다룬다(예컨대, Poulantzas, 1973; Carchedi, 1977; Wright, 1978). 이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이해나 계급의식, 실천이 각 개인이 계급구조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약받는다고 본다.

그러나 과정적 접근은 개인들의 행위과정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 계급분석을 강조한다(대표적으로, Thompson, 1963; Giddens, 1974; Parkin, 1979; Bourdieu, 1984; Przeworski, 1985; Burawoy, 1985; Katznelson and Zolberg, 1986). 이들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가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행위과정속에서 경험으로 농축되고,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축적되느냐에 따라 계급의식과 실천의 형성도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이 접근에서는 계급을 공동의 생활경험의 산물로서, 구조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태적인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이렇듯 두 접근은 때로 배타적일 정도로 서로 이질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런 대립상은 불평등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 방식뿐만 아니라 계급화로 인한 사회변동의 효과와 그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 하다. 하지만, 계급형성의 관점에 설 경우 두 접근간의 대립을 화해시킬 일관된 인과적 논리를 추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김석준, 1992; 안치민, 1992; 신광영, 조돈문, 1994). 사실 구조적 접근은 계급구조와 경계의 문제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계급형성의 필요조건을 거시적 수준에서 포착하고자 하며, 과정적 접근은 그 충분조건을 개인과 집단의 행위와 경험에 관심을 쏟으면서 미시적 · 중간적 수준(micro or meso level)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림〉 분석 틀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림과 같은 분석 틀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이 분석 틀은 위의 두 접근 방식간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서 Katznelson(1986)의 계급형성론을 일정하게 수용하여 구성시킬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은 네 개의 서로 연관된 이론과 역사의 층 또는 수준을 갖는 개념이며, 그 네 가지 수준은 "거시경제적 수준에서의 계급관계의 구조, 작업장과 거주공동체에서의 계급의 산 경험, 계급방식으로 행위하게끔 기질화된 사람들의 집단, 계급에 기초한 집합적 행위(1986 : 21)"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네 수준 각각이 결국은 계급분석의 주요 측면이자 주제인 계급위치, 계급경험, 계급의식, 계급투쟁과 직결 또는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김석준, 1992).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그의 네 수준중 전자의 세 수준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개인적 연줄망의 이론적 지위를 작업장과 거주공동체에서의 산 경험 곧 계급경험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위치시킬 수 있게 된다.[2]

연줄망의 성격에 관해서는 이미 적지 않은 연구성과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연줄망의 성격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은 물론, 연줄망의 강도와 밀도, 연줄망 형성의 동기와 범위 등에 대한 분석수준과 주제, 연줄망의 경험적 분석 모델 등에서 무척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김용학(1992 : 253-254)은 연줄망의 분석단위로부터 발생하는 속성의 위계가 개별적 속성(individual attribute), 관계적 속성(relational property), 구성적 속성(configuration)으로 서열화된다고 정리하면서, 이 가운데 상호작용적 관계의 관계적 속성이 발현적(emergent) 속성의 핵이 된다고 밝힌다. 우리가 계급형성의 과정과 관련하여 개인적 연줄망을 매개변인으로 삼는 이유도 특정 계급위치에 속한 개인과 그의 연줄망간에 드러나는 발현적 속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이 맺고 있는 연줄망의 관계적 속성 중 상호작용적 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동기의 측면에서 크게 정의적·표출적(expressive) 관계와 수단적(instrumental) 관계로 나누어진다. 이른 바 '약한 연줄론(strength of weak ties, Granovetter, 1973)'에 동조적인 Lin(1982 : 132-133; 1990 : 249)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은 자신과 사회적 지위나 이해가 비슷한 사람들과 기존의 강한 관계를 유지·의존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더 나은 희소자원획득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자신과 비슷한 자원접촉능력을 가진 동질적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한다.

2) Katznelson(1986)은 계급형성의 네 수준들이 일련의 단계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론의 가정에서 벗어난 이론 틀의 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네 수준이 단순히 병렬적 분류에 머무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는 첫째 수준인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구조가 다른 수준들에 필요조건의 위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는 이 수준이 다른 세 수준에 선행적일 개연성이 그만큼 높음을 뜻한다. 따라서 그의 네 수준은 적어도 경험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 글의 분석 틀과 동일한 관련에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해석을 할 때에도 그가 구조적 결정론의 적극적 비판자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김석준, 1992). 어쨌든, 이 글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지닌 선행연구라 할 수 있는 Wright and Cho(1992), 신광영·조돈문(1994)에서도 위의 분석 틀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수용되고 있다. 전자의 연구는 구조주의 맑스주의와 베버주의의 진영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후자는 이 글과 같이 구조적 접근과 과정적 접근을 대비시키면서 두 진영과 접근 방식을 각각 결합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선업(1991)은 한국 대도시 주민에 있어서 친족관계나 동창관계 모두가 산업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의 메카니즘으로 나타난 점은 같지만, 전자는 수직적 계층분화에 대한 적응으로서 수단적 성격이, 후자는 불안정한 수직적 계층분화의 위협에 대처하는 집단귀속과 지위유지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고 본다. 결국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연줄망 형성의 동기에 따라 연줄망의 계급위치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연줄망 결합 범위의 가변성과 연관하여 이 글의 관심범위 안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계급의식은 계급의 존재를 인식하는 계급간 적대와 계급내 친화의 의식으로서 개인이 속한 계급에의 정체감을 명료화한다(Mann, 1973; Giddens, 1974). 이러한 계급의식은 특정 개인이 담화적인 형태로 인식하는 현실인식에 계급적인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핌으로써 파악 가능하다. 이를 '약한 계급의식 개념(thin concept of class consciousness : Wright and Shin, 1988))'이라 부를 수 있거니와, 우리는 이러한 계급의식을 계급귀속감, 계급거리감과 친노동자 의식이라는 세 차원으로 구분해서 검토해볼 수 있다. 계급귀속감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계급관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계급위치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는지와 관련되고(김석준, 1992), 계급거리감은 다른 계급위치와 자신의 계급위치를 차별화·동일화하는 방식과 관련된 의식형태라 할 수 있다(나간채, 1988; 최태룡, 1991). 그리고 친노동자 의식(김석준, 1992)은 노동자와 자본가간 대립적 관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의 입장에 대해 정서적으로 어떻게 동조·친화하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의식으로서, 신광영과 조돈문(1994)에 의하면 일종의 계급적대감으로 풀이된다.

노동자계급에 한정된 시도이지만, 신광영과 조돈문(1994)은 계급의식의 형성에 친족관계의 연줄망이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있다[3]. 몇 가지 검증과제를 명제화한 후 분석한 결과 친족관계가 강할수록 계급의식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연령과 친족관계는 서로 결합하여 계급의식의 형성에 차이를 가져오지만 성과 친족관계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계급정체감과 계급적대감의 형성기제는 서로 달라서, 친족관계는 후자보다 전자에 대해 더 큰 설명력을 지닌다고 보고하고 있다.[4]

그렇다면, 이상의 이론적·경험적 연구에 대한 검토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적 명제들을

3) 이들의 연구는 연줄망과 관련시켜 노동자계급의 형성문제를 관계적 모델의 입장에서 양적 접근을 시도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의의와 함께 본 연구를 직접적으로 자극한 선행연구라는 의의도 갖는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Wright and Cho(1992)의 연구에 닿아있지만, 그와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측면을 접근해 보인다. Wright and Cho가 4개국에 대한 비교연구로서 연줄망의 유형 중 친구관계의 계급간 결합범위가 어떤 조건하에서 달라지는지를 주로 다룬다면, 이들은 국내의 노동자계급의 친족관계와 계급의식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뒤의 제 3장에서 제시하겠지만, 계급정체감에 대한 이들의 규정은 이 글의 계급귀속감과 매우 유사한 이론적 배경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측정방식과 조작화에서는 차이가 있다. 계급적대감의 측정도 1개 문항이 이 글의 친노동자 의식을 구성한 문항과 동일할 정도로 흡사하다(신광영 조돈문, 1994 : 218-219). 이렇게 된 이유는 이 글이 그들의 연구를 일정하게 반복 검증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러한 변인의 조작화와 측정을 지금과 유사하게 본 연구자가 측정해보인 적(김석준, 1992 : 96-100)이 있고 그것을 이 글에서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추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특정 개인이 속한 계급위치와 그가 상호작용하는 연줄망의 계급위치는 그 형성 동기에 따라 다르다.

1a) 특정 개인이 정의적 동기에 의해 연줄망을 형성할수록 그의 계급위치와 연줄망의 계급위치가 일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1b) 특정 개인이 수단적 동기에 의해 연줄망을 형성할수록 그의 계급위치와 연줄망의 계급위치가 불일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2) 특정 계급위치에 속한 개인의 계급의식 형성은 그가 상호작용하는 연줄망의 계급위치의 가변성에 영향을 받는다.

2a) 특정 계급위치에 속한 개인과 그가 상호작용하는 연줄망의 계급위치가 일치할수록 계급귀속감과 다른 계급성원과의 거리감은 더 강화된다.

2b) 특정 계급위치에 속한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연줄망의 계급위치가 노동자 계급위치일수록 그 개인은 계급적대감에서 친노동자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검증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위 네 개의 가설적 명제가 된다. 여기에 우리는 배경변인으로서 연령과 성을 더 개입시키고자 한다. 신광영과 조돈문(1994)은 친족관계와 계급의식 형성에 관해서 젊은 세대보다 기성세대일수록 친족관계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성별에 따라서는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연구결과 또한 검증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의 수집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에 의존했다. 표집은 제주시의 직업분포와 성, 연령별 분포를 고려한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의 방법을 따르고, 표본 수는 99%신뢰도 수준에서 ±5%의 표집오차 범위의 안에 드는 600명을 추출했다. 조사된 표본은 598명이지만, 편집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에 대한 응답에 무응답률이 높은 설문지를 제외한 525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는 1996년 2월 12일부터 2월말까지 진행됐다.

2. 변인의 측정과 분석

1) 계급위치의 조작화와 측정

이 글에서 계급위치는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입장에서 조사대상자의 계급

위치의 조작화는 Wright(1985)가 제안한 착취계급모델을 따랐다.[5] 그러나 그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자면 무려 12개의 계급위치를 구분 측정하고 이를 비교해야한다는 문제가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 설문결과에서 해당 계급위치에 속하는 사람의 수가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정도로 극소수이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그의 모델을 그가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틀을 훼손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4개의 계급위치로 축소시켜 보았다. 자본가계급, 쁘띠부르조아, 신중간계급, 노동자계급이 그것으로서 이들 각각은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측정되었다.

자본가계급 : 생산수단을 소유하며, 2명 이상의 유급상시노동자(paid routine employee)를 고용한 사람.[6]

쁘띠부르조아 : 생산수단을 소유하지만 자신이 직접 노동을 하며, 유급상시 노동자를 2명 미만 고용해 있는 사람.

신중간계급 : 특정인에게 고용되어 있지만 경영,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수단 비소유자.

노동자계급 : 특정인에게 고용되어 있고 경영,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생산수단 비소유자.

이러한 조작화는 뒤의 연줄망의 계급위치를 측정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2) 연줄망의 조작화와 측정

연줄망은 일상생활의 영역별로 조작화한 후 측정했다. 곧 일상생활이 주로 작업장,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의 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 연줄망을 이 세 영역별로 조작화한 것이다. 그런 후에 연줄망의 유형을 다시 정의적 관계와 수단적 관계의 둘로 나누어 그러한 유형별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연줄의 계급위치를 측정했다. 구체적인 조작화와 측정은 명제 1과 명제 2의 검증을 위해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됐다.

일차적으로 작업장내의 연줄망의 측정은 작업장내의 가족을 제외한 상위 직급의 상사, 동일 직급의 동료, 하위 직급의 부하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이 때 이 세 차원의 연줄망의 유형은 각각 4개의 설문에 대한 응답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한 후, 그 결과 얻어진 두

5) 계급위치의 조작화에 Wright의 모델을 수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우리가 그의 모델을 채용하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이 글에서 따져볼 계급형성에 미치는 연줄망의 영향을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계적 모델을 통해 검증한 두 개의 대표적 사례(Wright and Cho, 1992; 신광영·조돈문, 1994)가 모두 그의 모델에 입각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글은 그러한 연구들에 대한 재검증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필자가 시도한 최근의 두 작업(김석준, 1992; 김석준·박형준, 1997)에서도 한국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토론할 때 Wright의 모델에 제시된 계급경계 기준의 일부가 다른 이론가의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6) 피고용인 수에 따라 자본가계급과 쁘띠부르조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되지만(김석준, 1992), 이 글에서는 자본가계급에 Wright(1985 : 150)의 소고용주(small employer)를 포함시키고 있다.

요인에 모인 문항의 내용을 판독하여 정의적 관계와 수단적 관계로 명명했다. 이를 위해 동원된 문항은 상사, 동료, 부하별로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족을 제외하고 직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들이다.

① 주말 휴가나 여름 휴가를 같이 보내는 분.

② 취미나 기호가 비슷해 자주 시간을 같이 보내는 분.

③ 승진이나 승급 등에 도움을 주는 분.

④ 직장내의 잘못된 점에 대해 의견·행동을 같이 하는 분.

이 네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을 때 그 중 그러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지적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사람의 직장내 직위와 직급을 물어보았다. 이 네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은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으로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 시켰는데, 상사와의 연줄망에서는 누적변량(cumulative variance)이 76.8%, 동료 연줄망은 73.6%, 부하 연줄망은 77.9%였다. 세 경우 모두에서 문항 ①과 ②가 한 요인으로, 문항③, ④가 또 다른 한 요인으로 묶여졌고, 전자가 정의적 관계로, 후자는 수단적 관계로 명명됐다. 요인별로 모인 두 문항 각각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1점, '없다'는 0점을 준 후 요인별로 이를 합산하여 연줄망 유형의 측정치로 삼았다. 그런 후에 명제 1의 검증을 위해 유형별 연줄관계가 있는지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작화하였다. 따라서 명제 1의 검증에 동원된 작업장내의 연줄망은 상사와의 정의적(wntupe) 수단적(wntupi) 연줄망, 동료와의 정의적(wntcoe) 수단적(wntcoi) 연줄망의 네 변인이 된다.[7]

명제 2의 검증을 위한 작업장내 연줄망은 유형별로 최저 0점에서 최고 2점의 점수를 가지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연줄관계의 강도(strength of relationship)도 높아지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런 방식으로 측정된 작업장내 연줄망 변인들은 조사대상자와 다른 직위의 정의적 관계 연줄망(posothe)과 수단적 관계 연줄망(posothi), 조사대상자와 동일 직위의 정의적 관계 연줄망(posame)과 수단적 관계 연줄망(posami), 그리고 노동자계급이외의 정의적 관계 연줄망(othpose)과 수단적 관계 연줄망(othposi), 노동자계급인 정의적 관계 연줄망(propose)과 수단적 관계 연줄망(proposi)의 8개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연줄망의 조작화와 측정도 작업장의 경우와 유사한 절차를 거쳤다. 관련된 10개의 문항을 주요인분석으로 직각회전시킨 후 연줄망의 유형을 정의적·수단적 관계로 양분(누적변량, 54.5%)하고 각각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편 연줄망-동일 직장에 소속해 있지도 않고

7) 이 작업장내의 연줄망에서 상사와 동료의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계급위치가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에 속한 경우에만 측정됐다. 그리고 부하와의 연줄망은 명제 2의 검증을 위해 신중간계급에 한정하여 측정했다. 이는 자본가계급과 쁘띠부르조아일 경우 해당되는 연줄망이 없다는 응답이 다수였기 때문이며, 노동자계급은 이 글에서의 조작적 정의상 부하직원이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족 성원도 아닌 사람으로서 가장 가까운 한 사람 - 의 계급위치를 측정한 것이다. 이 지역사회 연줄망의 계급위치의 조작화와 측정은 위의 조사대상자의 계급위치와 동일하게 수행했다. 그 결과 명제 1의 검증을 위한 지역사회 연줄망은 정의적 · 수단적 관계의 자본가계급(각각 comclse1, comclsi1), 쁘띠부르조아(각각 comclse2, comclsi2), 신중간계급(각각 comclse3, comclsi3), 노동자계급(각각 comclse4, comclsi4) 연줄망의 8개 변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이 때 이 변인들은 연줄망과의 관계의 유형별로 관계의 강도를 반영하도록 측정됐는데, 이는 분석과정을 간결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택된다. 즉, 정의적 · 수단적 관계의 유형은 각기 최고 5점에서 최하 0점의 관계의 강도를 갖도록 하여, 만일 자본가계급과 정의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comclse1의 변인은 0점에서 5점의 점수를 지니도록 한 것이다. 점수가 클수록 지역사회내의 해당 계급의 성원과 그런 관계의 강도가 높음은 물론이다.

이 지역사회 연줄망 역시 명제 2의 검증을 위해 재조작화 됐는데, 조사대상자와 다른 계급위치의 정의적 관계 연줄망(comothe)과 수단적 관계의 연줄망(comothi), 조사대상자와 동일 계급위치의 정의적 관계 연줄망(comsame)과 수단적 관계 연줄망(comsami), 그리고 노동자계급 이외의 정의적 관계 연줄망(othcome)과 수단적 관계 연줄망(othcomi), 노동자계급인 정의적 관계 연줄망(procome)과 수단적 관계 연줄망(procomi) 등이다. 이 변인들 각각은 모두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의 관계의 강도를 갖는다.

명제 2의 검증에만 사용된 가족내 연줄망 변인들은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측정됐다. 부모는 조사대상자의 성장기(16세 전후)의 부 또는 모의 계급위치로, 배우자는 현재의 계급위치로, 형제자매 역시 현재의 계급위치를 측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형제자매의 경우는 위의 작업장내 연줄망과 지역사회 연줄망과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됐다. 곧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묻는 4개 문항 - 작업장 연줄망의 경우와 동일 - 을 설문한 후 그런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 중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만을 지적하도록 하여 그 사람의 계급위치를 측정한 것이다.

이러한 가족 연줄망의 변인들은 조사대상자와 다른 계급위치의 부 또는 모(fatoth), 배우자(spooth), 그리고 정의적 관계와 수단적 관계의 형제자매(각각 broothe, broothi)가 측정되었고, 이어서 조사대상자와 동일 계급위치의 부 또는 모(fatsam), 배우자(sposam), 정의적 관계와 수단적 관계의 형제자매(각각 brosame, brosami) 등이 측정됐다. 여기에 더해 노동자계급이

8) 4개 문항은 작업장의 연줄망처럼 요인분석(누적변량, 72.8%)하여 정의적 · 수단적의 두 유형의 관계로 나누고 각 유형별의 관계의 강도를 측정했고(최저 0점에서 최고 2점), 이를 조사대상자의 상대편 연줄망인 형제자매 - 가장 가까운 관계의 한 사람 - 의 계급위치에 반영시켰다. 그러나 부 또는 모와 배우자의 가족 연줄망은 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만을 측정했고, 따라서 명제 2의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연줄망은 모조변인(dummy variable)으로 조작화됐다.

아닌 부 또는 모(othfat), 배우자(othspo), 정의적 수단적 관계의 형제자매(각각 othbroe, othbroi), 그리고 노동자계급인 부 또는 모(profat), 배우자(prospo), 정의적 관계와 수단적 관계의 형제자매(각각 probroe, probroi)의 변인이 더 합성 조작화됐다.

3) 계급의식의 조작화와 측정

계급의식은 앞의 2장에서 거론한대로 계급귀속감, 계급거리감, 친노동자 의식의 셋으로 나누어 조작화 측정했다. 여기서 계급귀속감은 사회적 불평등을 서열적인 등급화 모델이 아니라 관계적 모델로 인식하는 정도가 클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가정한 후 측정에 임했다. 먼저 한국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① 한국사회는 기업가와 고용주 등 자본가계급과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계급의 두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한국사회는 기업가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상류층, 사무직에 종사하는 중류 화이트 칼라층, 육체노동을 하는 하류층의 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와 "③ 한국사회는 아주 잘 사는 사람,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 보통 수준으로 사는 사람,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의 네 가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의 세 진술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했다. 그런 후에 나열된 순서대로 각 응답에 3점, 2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응답자가 동의한 세 진술 중 하나에 나타나는 계급 또는 계층의 어디에 속하는지를 다시 응답하도록 하여 다음의 〈표 1〉과 같이 조작화했다.

〈표 1〉 계급귀속감의 조작화와 측정

응답형태 구조적 위치(변인)	두 계급 모델 (척도점수)	3 계층 모델 (척도점수)	4 계층 모델 (척도점수)	다른 계급 위치로 응답할 경우 (척도점수)
자본가계급 (brgid)	자본가계급 (3점)	상류층 (2점)	보통이상 또는 아주 잘하는 사람 (1점)	(0점)
신·구 중간계급 (midid)		중류층 (2점)	보통수준으로 사는 사람 (1점)	(0점)
노동자계급 (proid)	노동자계급 (3점)	하류층 (2점)	보통이하 수준으로 사는 사람 (1점)	(0점)

이 〈표 1〉에서 만일 응답자가 '두 계급 모델'의 노동자계급이라 응답하면 그의 노동자계급 귀속감은 3점, '3계층 모델'의 하류층이라 응답하면 2점, '4계층 모델'의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응답하면 1점이 된다. 만일에 그가 위에서 측정된 구조적인 계급위치가 노동자계급으로 정의되는 데도 이 세 개의 선택지(노동자 계급, 하류층, 보통이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 중 어느 하나로 응답하지 않고 다른 선택지(가령, 상류층, 자본가계급 등)로 답할 경우 그의 노동자계급 귀속감은 0점이 된다. 이는 다른 계급위치에 속한 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9]

계급거리감은 우선 계급구조상에서 응답자와 같거나 다른 계급위치가 될 수 있는 11개의 직업을 임의로 골라 예시하고, 한국사회의 경제문제에 대해 그 직업의 사람들과 생각이나 태도, 경제적 관심에서 어느 정도나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는지를 설문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직업의 종사자와 비슷하다고 응답할 경우 1점을 그렇지 않다고 할 경우는 0점을 준 후 이를 주요인분석으로 직각회전시켜 4개의 요인을 얻었다(누적 변량은 63.2%). 이 네 요인은 요인부하치(factor loading) 0.6이상의 직업만을 볼 때 다음과 같이 명명할 수 있도록 직업 집단을 형성해냈다.

요인 1 : 노동자계급(prodist : 생산직 육체노동자, 점원과 판매원, 웨이터 등 서비스업 종사자, 시간제와 일용직 노동자)

요인 2 : 자본가계급(brgdist : 대기업주, 중소기업을 소유한 사장)

요인 3 : 구중간계급(petdist : 식품, 의류, 도서 등 도소매업주, 요식숙박업주, 자영농민)

요인 4 : 신중간계급(middist : 초·중·고교 교사, 기업체 과장급의 하급관리자)

이 네 요인별로 계급거리감은 각기 최고 1점에서 최하 0점이 되도록 측정했다. 예컨대 노동자계급과의 거리감은 1점에 가까울수록 친밀하게 느낌을 말하고 0점으로 갈수록 자신과 멀게 느낌을 뜻한다.

친노동자 의식은 노-자간 대립에서 노동자의 입장에 정서적으로 동조·친화하고 있는지의 수준으로 조작화 측정됐다. 이 글의 정의상 친노동자 의식이 높을수록 계급 적대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 의식의 측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문항이 동원됐다.

a. 대부분의 한국 노동자들은 그들이 받아야 될 것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b. 파업을 하는 동안 그에 참여하는 노동자 대신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c. 만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산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조건의 개선과 임금인상 문제 등을 가지고 파업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아래의 네 가지 결과중 어떤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9) 이런 방식의 계급귀속감의 조작화와 측정은 종래의 많은 연구들(예를 들어, 홍두승, 1983; 장상수, 1996)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계급 또는 계층귀속감을 사회내 계급관계에 대한 인식과는 분리된 특정 계급이나 계층 자체에 대한 단순한 소속감이나 동일시하는 정도로만 측정해왔지만, 이 글에서 우리는 특정 계급에의 소속감 그 자체가 사회내 불평등을 계급적으로 적대적인 관계 즉 관계적 모델로 인식하는 정도와 관련될 개연성에 더 비중을 두어 조작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곧 특정 계급이 초점이 아니라 갈등적 계급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일차적 관심사라는 것이다.

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요구를 대부분 성취해야 한다.
② 노동자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일부는 성취하고 일부는 양보해야 한다.
③ 노동자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 중 약간의 것만을 성취하고 대부분을 양보해야 한다.
④ 노동자들은 그들의 요구를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세 문항의 응답을 동일방향으로 재부호화한 후 주요인분석을 가한 결과 세 문항 모두 1개 요인으로 묶였고, 누적 변량은 48.4%였다. 이 세 문항의 응답을 합산한 것을 친노동자의식(변인명 : procons)으로 정의했는데, 측정은 최고 4점, 최저 1점으로 하였고 점수가 클수록 노동자의 입장에 더 동조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분석절차와 방법

이상과 같이 변인들을 정의 측정한 후 분석은 먼저 표집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앞의 2장에 제시된 두 명제의 네 하위명제별로 나누어 분석해나갔다. 명제 1의 분석은 작업장내 연줄망과 지역사회 연줄망의 두 영역에서 행해졌고, 일부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와 변량분석이 활용됐다. 그리고 명제 2의 검증에서는 회귀분석이 가해졌는데, 여기서는 앞서 논한 대로 위의 변인들에 더해 성(변인명 : sex)과 연령(변인명 : age)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계급위치가 자본가계급과 쁘띠부르조아인 경우에는 작업장내 연줄망은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분석은 제외되었고, 가족과 지역사회 연줄망에 대해서만 연줄관계의 영향이 따져졌다.

Ⅳ.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된 대상자들을 성별과 연령별, 그리고 바로 앞에서 조작화·측정된 계급위치별로 분포를 보면 〈표 2〉와 같다. 이에 따르면, 남자(67.2%)가 여자(32.8%)보다 다수이고, 연령별로는 30대 33.9%, 20대 32.2%, 40대 19.8%, 50대 이상 14.1%의 순서로 구성된다. 그리고 계급위치별로는 자본가계급이 11.2%, 쁘띠부르조아가 34.7%, 신중간계급 13.7%, 노동자계급 40.4%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1994년 현재의 제주시의 직업구성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게다가 계급위치별 구성비는 종래의 제주도 또는 제주시의 계급구성(이상철, 1995; 정대연, 1995)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표본은 원래의 분석을 행하는 데 활용되어도 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합계 : 525명, 100%)

항 목	분 포
성	남자(353명, 67.2%), 여자(172명, 32.8%)
연 령	20대(169명, 32.2%), 30대(178명, 33.9%), 40대(104명, 19.8%), 50대이상(74명, 14.1%)
계 급 위 치	자본가계급(59명, 11.2%), 쁘띠부르조아(182명, 34.7%), 신중간계급(72명, 13.7%), 노동자계급(212명, 40.4%)

2. 명제 1의 검증

우리가 검증할 명제 1은 두 개의 하위명제(1a와 1b)로 구성됐다. 이 명제들을 여기서는 작업장과 지역사회 연줄망을 통해 검증해보도록 한다. 검증은 조사대상자중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판명된 사람들에 한정시킨다. 물론 두 영역 중 지역사회 연줄망은 네 계급위치에 속한 조사대상자 모두에 대해서 측정됐지만, 작업장내 연줄망은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조사대상자에 한해서만 측정됐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는 두 영역간 비교를 손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작업장내 연줄망

〈표 3〉 신중간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작업장내 연줄망의 형성 유형

연줄망의 위치별 관계 유형 (조사대상자의 계급위치)	신중간 계급 사례수(%)	노동자 계급 사례수(%)
상사와의 연줄관계=정의적 (x), 수단적 (x) 유형 1 동료와의 연줄관계=정의적 (x), 수단적 (x)	18(25.7)	46(22.0)
상사와의 연줄관계=정의적 (o), 수단적 (x) 유형 2 동료와의 연줄관계=정의적 (x), 수단적 (x)	3(4.3)	2(1.0)
상사와의 연줄관계=정의적 (x), 수단적 (x) 유형 3 동료와의 연줄관계=정의적 (o), 수단적 (x)	0(0.0)	3(1.4)
상사와의 연줄관계=정의적 (x), 수단적 (o) 유형 4 동료와의 연줄관계=정의적 (x), 수단적 (x)	12(17.1)	29(13.9)
상사와의 연줄관계=정의적 (x), 수단적 (x) 유형 5 동료와의 연줄관계=정의적 (x), 수단적 (o)	3(4.3)	25(12.0)
상사와의 연줄관계=정의적 (o), 수단적 (x) 유형 6 동료와의 연줄관계=정의적 (o), 수단적 (x)	1(1.4)	1(0.5)

〈계속됨〉

〈앞에서 계속〉

연줄망의 위치별 관계 유형	조사대상자의 계급위치	신중간 계급 사례수(%)	노동자 계급 사례수(%)
상사와의 연줄관계=정의적 (o), 수단적 (o) 동료와의 연줄관계=정의적 (x), 수단적 (x)	유형 7	10(14.3)	10(4.8)
상사와의 연줄관계=정의적 (o), 수단적 (x) 동료와의 연줄관계=정의적 (x), 수단적 (o)	유형 8	0(0.0)	0(0.0)
상사와의 연줄관계=정의적 (x), 수단적 (o) 동료와의 연줄관계=정의적 (o), 수단적 (x)	유형 9	0(0.0)	1(0.5)
상사와의 연줄관계=정의적 (x), 수단적 (x) 동료와의 연줄관계=정의적 (o), 수단적 (o)	유형 10	0(0.0)	13(6.2)
상사와의 연줄관계=정의적 (x), 수단적 (o) 동료와의 연줄관계=정의적 (x), 수단적 (o)	유형 11	10(14.3)	30(14.4)
상사와의 연줄관계=정의적 (o), 수단적 (o) 동료와의 연줄관계=정의적 (o), 수단적 (x)	유형 12	1(1.4)	1(0.5)
상사와의 연줄관계=정의적 (o), 수단적 (x) 동료와의 연줄관계=정의적 (o), 수단적 (o)	유형 13	0(0.0)	1(0.5)
상사와의 연줄관계=정의적 (o), 수단적 (o) 동료와의 연줄관계=정의적 (x), 수단적 (o)	유형 14	0(0.0)	1(0.5)
상사와의 연줄관계=정의적 (x), 수단적 (o) 동료와의 연줄관계=정의적 (o), 수단적 (o)	유형 15	2(2.9)	17(8.1)
상사와의 연줄관계=정의적 (o), 수단적 (o) 동료와의 연줄관계=정의적 (o), 수단적 (o)	유형 16	10(14.3)	29(13.9)
합 계		70(100.0)	209(100.0)

주) 연줄망의 위치별 관계 유형 중 (x)는 해당 관계 유형이 없음을, (o)은 있음을 의미.

〈표 3〉은 조사대상자 중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에 속하는 응답자에 대해서 작업장내 연줄망이 어떤 형태로 유형화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작업장내에서 연줄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유형 1)가 신중간계급이 25.7%, 노동자계급은 22.0%나 되어 적지 않은 비율의 사람들이 작업장내의 인간관계에 그리 만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해당 연줄망을 형성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10] 그리고 상사나 동료 모두에 대해서 정의적 관계나 수단적 관계의 어느 한 가지 연줄관계만을 지니고 있는 사례(유형 2 - 유형 5)의 분포도 약 25%(신중간계급)에서 28%(노동자계급)나 된다. 이 역시 작업장내에서의 인간관계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형성됨을 의미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신중간계급은 상사와의 수단적 관계에만 치중하는 사례(유형 4)가 노동자계급보다 다소 많은 17.1%가 되는 반면, 노동자계급은 동료하고만 같은 관계에 치중하는 사례(유형

10) 여기에는 직장 상사나 동료직원이 없는 경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5)가 12.0%로 신중간계급의 약 4배나 되어 주목된다. 이 관계는 다시 상사와만 연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유형 7)에서 신중간계급이 14.3%인데 비해 노동자계급은 4.8%에 불과하고, 동료하고만 연줄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유형 10)는 그 반대로 노동자계급에서만 6.2%이고 신중간계급은 전무하다는 결과와도 일정하게 연관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상사와 동료 모두에 대해 정의적 관계만을 맺고 있는 경우(유형 6)는 두 계급 전체적으로도 극히 희소하지만, 수단적 관계만 맺는 경우(유형 11)는 두 계급 공통으로 약 14%를 넘는 비중이라는 사실이다.

〈표 4〉는 이상을 간결히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다중응답 형태로 재정리한 결과로서, 〈표 3〉에서 특정의 유형별 연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모두 합산하여 단순화시켰다. 예를 들어 16개의 유형에서 상사와 정의적 관계에 있다는 응답은 모두 합산하여 한 범주로 묶는 방법을 쓴 것이다.

〈표 4〉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작업장내 연줄망 유형(다중응답)

단위 : 사례수(%)

연줄망유형 / 계급위치	상사와의 연줄 관계		동료와의 연줄 관계		합 계
	정의적 관계	수단적 관계	정의적 관계	수단적 관계	
신중간계급	25(22.9)	45(41.3)	14(12.8)	25(22.9)	109(100.0)
노동자계급	45(13.0)	118(34.2)	66(19.1)	116(33.6)	345(100.0)

〈표 4〉에서 신중간계급은 다른 범주에 비해 상사와 수단적 관계의 연줄망을 형성하고 있는 사례(41.3%)가 가장 많고, 동료와의 수단적 관계는 그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명제 1b에 일정하게 부합한다. 그러나 명제 1a와는 다르게 신중간계급에서 가장 적은 연줄관계는 동료와 정의적 관계를 형성한 경우(12.8%)로서 상사와의 같은 관계(22.9%)보다도 적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상사와 연줄관계에 있는 경우는 64.2%이지만 동료와는 35.7%로 나타나 신중간계급의 작업장내 연줄망은 후자보다 전자에 더 기울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계급도 상사와의 수단적 연줄관계의 사례(34.2%)가 가장 많지만, 동료와의 수단적 관계의 비중(33.6%)도 그에 근접해 있다. 따라서 이는 명제 1b의 내용에 뚜렷하게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계급에서 가장 적은 연줄관계(13.0%)는 상사와의 정의적 관계이고, 신중간계급에 비할 때 동료와의 정의적 관계의 비중(19.1%)이 다소 크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상사(47.2%)보다는 동료(52.7%)와 연줄관계를 더 많이 맺고 있다는 점도 신중간계급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계급 모두에서 작업장내 연줄망은 전반적으로 정의적 관계(신중간계급 35.7%, 노동

자계급 32.1%)보다 수단적 성격(신중간계급 64.2%, 노동자계급 67.8%)이 더 두드러짐도 밝혀진다. 이는 결국 종래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작업장의 인간관계가 일차적이기보다 이차적이고, 공동사회적이기보다 이익사회적이라는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어쨌든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작업장내의 연줄망에 관한 한 명제 1의 두 하위명제들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승인된다. 명제 1a는 노동자계급의 경우에만 그에 가까운 경향이 보이지만 확정적이지 못하고, 명제 1b는 신중간계급에서만 받아들일 만하다. 한편, 관계의 유형을 무시할 경우,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간에 시장상황의 차이(Lockwood, 1958)라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 곧 전자는 상사와의 연줄관계에 비중을 더 두며, 후자는 동료와 그러한 것이다. 이 결과는 전자의 상대적으로 열려진 승진가능성 등의 요소에 의해 그리고 후자의 낮은 학력이나 낮은 사회적 가치의 자격보유 등에 따른 열악한 시장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 연줄망

조사대상자 중 신중간계급의 지역사회 연줄망에 관한 〈표 5〉를 보면,[11] 이들의 연줄망이 정의적 동기에 의한 것일 경우 그 관계의 강도가 상대편 연줄망의 계급위치에 따라 차이가 없다. 〈표 6〉의 노동자계급의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단적 성격에서는 〈표 5〉의 신중간계급의 경우 상대편 연줄망의 계급위치별로 관계의 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점(3.16)이상 보다 높은 연줄망의 관계의 강도는 신중간계급 - 자본가계급(3.80)과 신중간계급 - 신중간계급(3.26)간에서 나타난다. 그 뒤를 신중간계급 - 쁘띠부르조아(3.00)가 이어가며 신중간계급 - 노동자계급(1.43)간의 관계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표 6〉의 노동자계급의 수단적 성격의 관계는 연줄망의 계급위치별로 그 강도가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신중간계급이나 노동자계급 모두 정의적 성격의 관계에서는 연줄망의 계급위치가 다양하고 특정의 계급위치에 편중되지 않고 있어서 하위명제 1a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신중간계급만 수단적 성격의 관계에서 연줄망의 계급위치가 자신과 같은 계급위치 또는 자본가계급 곧, 자신의 처지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계급위치와 연줄관계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있어서 하위명제 1b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게 된다.

---

11) 지역사회 연줄망에 대한 분석은 간결성을 높이기 위해 연줄 관계의 유형별 존재 유무가 아닌 유형별 관계의 강도를 가지고 분석에 임했다. 만일 앞의 작업장내 연줄망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게 되면 작성되어야 할 표의 수나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범주의 수가 너무 많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지만 혹 있을지 모를 정보의 상실을 막기 위해 작업장내 연줄망의 경우와 같은 표들을 작성했고, 현재의 변량분석 결과와 대비해 보았다. 그러나 결과의 해석에서 그리 큰 변이는 일어나지 않았다.

〈표 5〉 신중간계급의 지역사회 연줄망의 계급위치별 관계의 강도(ANOVA)

연줄망 위치 관계유형	자본가계급	쁘띠부르조아	신중간계급	노동자계급	통 계 치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정의적 관계	3.79	3.80	3.47	3.00	F .698 n.s.
수단적 관계	3.80	3.00	3.26	1.43	F 4.767 p<.01

〈표 6〉 노동자계급의 지역사회 연줄망의 계급위치별 관계의 강도(ANOVA)

연줄망 위치 관계유형	자본가계급	쁘띠부르조아	신중간계급	노동자계급	통 계 치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정의적 관계	4.75	3.67	3.96	3.71	F 1.113 n.s.
수단적 관계	3.40	1.94	3.00	2.73	F 4.769 n.s.

3. 명제 2의 검증

명제 2는 계급의식의 세 차원(계급귀속감, 계급거리감, 친노동자 의식)별로 나누어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 때 분석은 그러한 세 차원을 종속변인으로 삼고 선정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을 비교하는 회귀분석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은 두 개의 모델을 수립하도록 수행됐는데, 회귀모델 1은 모든 독립변인을 포함하여 회귀방정식을 구하도록 했고, 회귀모델 2는 일정한 기준(SPSS의 stepwise selection method의 변인선택기준)에 맞는 독립변인만을 추출하여 회귀방정식을 구성하도록 했다. 따라서 분석은 회기모델 2의 결과에 의존할 때 간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 연줄망과 계급귀속감

여기서 검증할 내용은 특정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연줄망의 계급위치가 그의 계급위치와 일치할수록 계급귀속감이 강해지는가의 여부이다. 우리의 조작적 정의로는 계급귀속감이 클수록 사회내의 적대적 계급관계에 대한 인식도 커진다는 점이 이미 언급됐다.

〈표 7〉에 제시된 것 가운데 회귀모델 2에 치중해보면, 자본가계급의 경우 회귀방정식에 동원될 수 있는 변인은 comsami로 명명된 것 하나뿐이다. 그러나 이 변인이 그러하다는 것은 수단적 관계에 있는 지역사회 연줄망의 계급위치가 자신과 동일한 자본가계급이고 그 관계의 강도가 커질수록 계급귀속감도 커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회귀모델 2에서는 broothi 변인과 sex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있어서, 수단적 관계의 형제자매의 계급위치가 자신과 다를 경우 계급귀속감을 약화시키고 남자일수록 계급귀속감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영역별 연줄망에 의한 계급귀속감의 회귀분석

	자본가 계급		쁘띠부르조아		신중간 계급		노동자 계급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배경변인								
sex	.167		-.067		-.012		.126	.151*
age	.014		-.236**	-.236**	-.210	-.262*	-.117	
작업장								
posothe					-.032		.025	
posothi					.163		.029	
posame					-.125		-.008	
posami					.126		.076	
지역사회								
comothe	-.058		.009		.277	.272*	.200*	
comothi	-.069		.001		-.085		-.180*	
comsame	.226		.021		-.245		.136	
comsami	.215	.357**	.023		.202		-.191*	
가족								
fatoth	-.108		.105		-.382		-.351**	
spooth	-.125		-.075		.099		.012	
broothe	-.288		-.116		-.005		-.042	
broothi	.357		-.001		-.084		-.123	-.157*
fatsam	-		.076		-.216		-.352**	
sposam	-.019		-.019		-.366*	-.272*	-.061	
brosame	.118		.002		-.318		.045	
brosami	-.219		-.052		.296		-.094	
R-square	.2426	.1276	.0780	.0558	.3365	.1932	.1634	.0454

주) * p<.05, ** p<.01, *** p<.001

하지만, 쁘띠부르조아의 회귀모델 2에서는 age 변인만이 계급귀속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신중간계급의 경우는 정의적 관계의 지역사회 연줄망이 자신과 다른 계급위치일 때 긍정적 영향을 받는가하면 자신과 동일 계급위치의 배우자로부터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 혼란된 모습을 보여준다. 아마도 이러한 것은 신중간계급의 모순적 성격의 일부가 드러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글에서는 조사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구는 유보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지금의 연줄망과 계급귀속감에 대해서는 명제 2의 하위명제 1a가 계급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세 영역의 연줄망 모두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요컨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에서는 일정하게 적용가능하고, 쁘띠부르조아와 신중간계급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2) 연줄망과 계급거리감

〈표 8〉 영역별 연줄망에 의한 계급거리감의 회귀분석

	자본가 계급		쁘띠부르조아		신중간 계급		노동자 계급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배경변인								
sex	.183		.019		-.201		.026	
age	.310	.301*	.178*	.177*	.153		-.093	
작업장								
posothe					.078		.182*	
posothi					-.400	-.330*	-.072	
posame					-.226		-.132	
posami					.613**	.369**	.049	
지역사회								
comothe	-.269		.054		-.044		-.032	
comothi	-.290		.005		.083		-.114	
comsame	-.162		.065		-.115		-.042	
comsami	.144		-.028		.331	.271*	-.072	
가족								
fatoth	.075		-.171	-.196*	-.442		-.062	
spooth	-.092		-.064		-.220		-.027	
broothe	.257		-.053		.241		.169	
broothi	.020		-.077		-.052		-.094	
fatsam	-		.031		-.347		-.130	
sposam	-.044		.094		.036		-.054	
brosame	-.037		-.106		.061		.053	
brosami	.008		-.017		-.120		.086	
R-square	.2391	.0908	.1182	.0778	.3196	.1982	.0993	-

주) * p<.05, ** p<.01, *** p<.001

계급거리감과 연줄망의 관계에 대한 명제 2의 하위명제 1a는 상호작용하는 연줄망의 계급위치가 일치할수록 다른 계급성원과의 거리감은 더 강화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를 상호작용하는 연줄망의 계급위치가 일치할수록 동일 계급성원과의 계급거리감은 더 약화된다-가까워진다-는 것으로 전환시켜 분석에 임하고자 한다.[12]

12) 이는 물론 분석과 해석의 간결화를 겨냥한 전환으로, 원래대로의 명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본가계급에 대해서만 세 개의 계급거리감, 곧 다른 세 계급성원과의 거리감을 도표화하고 해석해야 하지만 전환시킨 명제는 하나의 표에서 네 계급위치의 성원들과 연줄망의 관계가 계급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묶어 동시에 비교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렇게 전환하더라도 애초의 명제를 구성한 이론적 맥락을 거의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점도 그렇다.

〈표 8〉에서 쁘띠부르조아는 fatoth 변인 곧, 부 또는 모의 계급위치가 자신과 다를 경우 쁘띠부르조아 계급 구성원과의 거리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연령이 많을수록 그러한 거리감은 약화되어 동일시의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회귀방정식이 수립된다. 신중간계급은 작업장내의 수단적 관계의 연줄망이 자신과 다른 직위에 있는 경우(posothi)는 신중간계급과의 거리감이 강화되는 반면, 자신과 비슷한 직위의 수단적 관계의 연줄망(posami)과 교류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자신과 동일 계급위치의 연줄망과 수단적 관계(comsami)가 강할수록 거리감이 약화되어 동일 계급위치의 성원들과 동일시하는 정도가 커진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에서는 연줄망과 계급거리감의 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연령이 많을수록 자신과 동일한 자본가계급과의 거리감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에서는 어떤 변인도 회귀방정식을 구성하는 데 포함되지 않았다.

요컨대 이상의 분석은 앞의 계급귀속감과 마찬가지로 계급거리감에 대해서도 연줄망의 영향은 계급위치별로 차별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는 우리의 명제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의 관계의 방향은 명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3) 연줄망과 친노동자 의식

〈표 9〉는 명제 2의 하위명제 2a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표에서 우선 자본가계급은 지역사회에서 정의적 관계의 비노동자계급 연줄망(othcome)과 교류를 많이 할수록 노동자에 대해 적대적인 의식이 강화되지만, 노동자계급인 형제자매와 정의적 관계(probroe)를 많이 가질수록 친노동자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또 노동자계급의 경우는 작업장에서 다른 직위 - 직장 상사 - 의 사람들과 정의적 관계(othpose)를 많이 가질수록 노동자계급의 구성원임에도 친노동자 의식은 약화되며, 자본가 계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에 속하는 형제자매와 정의적 관계의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할수록 친노동자 의식이 강화된다.

하지만, 쁘띠부르조아와 신중간계급의 경우는 연줄망과 친노동자 의식의 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단지 쁘띠부르조아에서 여성이 더 친노동자 의식이 약함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서도 앞의 두 계급의식의 차원들과 동일하게 연줄망은 계급위치에 따라 계급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주거나 주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 게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의 관계는 여전히 우리의 명제와 일치하는 방향임도 확인된다.

〈표 9〉 영역별 연줄망에 의한 친노동자 의식의 회귀분석

	자본가 계급		쁘띠부르조아		신중간 계급		노동자 계급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배경변인								
sex	-.289		-.260**	-.277***	-.109		.001	
age	.014		-.102		-.032		-.012	
작업장								
posothe					.008		-.232*	-.220**
posothi					.164		.008	
posame					-.117		-.089	
posami					.013		.142	
지역사회								
comothe	-.358	-.313*	.047		.158		.011	
comothi	.201		-.105		-.235		-.032	
comsame	-.155		-.075		.252		.067	
comsami	-.102		.130		-.334		.011	
가족								
fatoth	.445		-.086		-.639*		-.158	
spooth	.031		.066		-.265		-.029	
broothe	-.154		-.106		.127		.153	
broothi	.041		.037		-.049		-.066	
fatsam	.346		-.039		-.851**		-.202	
sposam	.305		-.005		-.011		.018	
brosame	.268	.283*	-.228		.027		.106	.153*
brosami	.076		.216		-.263		.071	
R-square	.4395	.2201	.1527	.0765	.3378	-	.1222	.0656

주) * p<.05, ** p<.01, *** p<.001

V. 요약과 맺음말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제주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한 표본조사자료를 분석하면서 연줄망과 계급형성의 문제를 토론해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연줄망과 계급의식의 형성에 관련된 네 개의 명제를 추출하고 이를 검증해보았다.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들로 요약된다.

첫째, 연줄망 형성의 동기와 연줄망의 계급위치에 대한 명제는 일상생활의 세 영역 가운데 작업장과 지역사회의 두 영역에서 부분적으로만 검증된다. 그것도 신중간계급에 대해서만 일정하게

적용가능하고 노동자계급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신중간계급은 작업장내와 지역사회에서 수단적 동기에 의한 연줄망을 자신보다 비교적 권력이 더 많은 계급위치의 구성원과 형성하여 명제 1b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정의적 동기에 의한 연줄관계는 작업장내의 경우 동료보다 상사와 맺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계급위치의 구성원과 연줄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강도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은 그러한 연줄망의 형성 동기와 연줄망의 계급위치의 관계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 계급의 경우 단지 작업장내의 연줄관계에서 상사보다는 동료와 정의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지만 명제 1a를 확정적으로 승인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업장내의 연줄망의 성격에 대한 연장된 논의를 얻을 수 있었다. 곧 작업장내에서의 연줄관계는 전반적으로 정의적이기보다는 수단적이라는 사실과, 신중간계급이 노동자계급에 비해 동료보다는 상사와 연줄관계를 더 많이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전자는 작업장내의 인간관계가 일차적 또는 공동사회적이기보다 이차적이고 이익사회적이라는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후자는 두 계급간의 시장상황의 차이가 반영되어 그런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연줄망과 계급의식의 형성에 관한 명제도 부분적으로만 승인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보완을 통한 명제의 확장가능성이 더 크게 엿보인다. 곧 계급위치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고 일관되지 않은 영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연줄망이 계급귀속감이나 계급거리감, 친노동자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일정한 방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명제의 논리적 구성과 이론적 배경까지는 훼손시키질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연줄망이 계급의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글의 명제 2는 약간의 유보를 달면서 수용해도 무방하다고 보아진다.

셋째, 기존 연구(신광영 · 조돈문, 1994)와 비교하기 위해 도입된 변인들은 일정하게 이 글에서도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연령에 따라 계급의식의 형성이 변화하며, 성별도 역시 그러한 매개적 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에 한정시키자면, 이들에게 있어서 계급의식의 형성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맺는 연줄망보다 작업장내와 가족 연줄망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연줄망에서는 부모나 배우자보다 형제자매의 계급위치가 더 중요한 계급의식 형성의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친족관계의 연줄망과의 상호작용 자체가 계급의식의 형성에 주는 영향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친족연줄망의 성격을 분해한 후 계급위치에 반영시킨 것을 가지고 검토한 우리의 결과는 연줄망과의 상호작용 자체보다 상호작용하는 연줄망의 계급위치가 무엇이고 상호작용의 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영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종래의 연구는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연줄망과 계급형성의 문제에 이상과 같은 관련이 있지만, 우리의 연구는 연줄망 이외에 다른 변인의 개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음을 일정하게 시사한다. 이는 분석을 위해 수립한 회귀모델의 설명력(R-square)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그 설명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하나의 지침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글에서 밝혀진 연줄망과 계급형성의 관계가 무시될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님은 물론이다.

참 고 문 헌

김문조 · 박형신. 1991. "한국 지역주의의 형성과정과 성격,"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민족문화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선업. 1991. "한국 대도시 주민의 개인적 연줄망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김석준. 1992. "한국 중간층의 계급 위치와 계급 성격 : 도시 임금취득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김석준 · 박형준. 1994. "계급경계 기준들에 대한 비교 : '신중간층'과 노동자 계급간의 경계문제를 중심으로," 신행철, 양춘 외 『한국사회의 계급 연구』 서울 : 민음사. 에 게재예정(1998년 2월 출판예정).

김진균. 1983. "한국사회의 구조적 역동성 분석을 위한 몇 가지 개념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 법문사, 351 - 362.

김용학. 1992.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 나남.

나간채. 1988. "직업계층간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문석남 외. 1990. 『지역사회의 연고주의 : 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망과 실태』 서울 : 일진사.

신광영 · 조돈문. 1994.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 친족관계,"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계급과 한국사회』 서울 : 한울, 205 - 236.

안치민. 1992. "한국사회의 계급구조화 연구," 『한국사회학』 26(여름호) : 59 - 81.

이상철. 1987. "제주 사회변동론 서설 :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8(3) : 31 - 66.

장상수. 1996. "한국 사회에서의 주관적 계층 위치," 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49 : 180 - 212.

정대연. 1993. "제주시의 계급구조," 제주대학교 『논문집(인문 · 사회과학편)』 37 : 215 - 229.

정수복. 1994. 『의미세계와 사회운동』 민영사.

최태룡. 1991. "구중간층의 형성과 사회의식,"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홍두승. 1983.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 법문사, 169 - 213.

Abercrombie, N. and J. Urry. 1983. *Capital, Labour and the Middle Classes*, London : George Allen & Unwin.

Bendix, R., and S. M. Lipset. 1966. "Karl Marx's Theory of Social Classes,"

in R. Bendix and S. M. Lipset (eds.) *Class, Status, and Power,* (*2nd. ed.*) New York : Free Press. 6 - 11.

Bott, E. 1955. "Urban Families : Conjugal Roles and Social Networks," *Human Relations,* 8 : 345 - 383.

Bourdieu, Pierre. 1984. *Distinction :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translated by Richard Nic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Burawoy, Michael. 1979. *Manufacturing Consent : Changes in the Labour Process under Monopoly Capitalism,*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1985. *The Politics of Production : Factory Regimes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London : Verso.

Burris, Val. 1987. "The Neo - Marxist Synthesis of Marx and Weber on Class," in N. Wiley (ed.) *The Marx - Weber Debate,*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67 - 90.

Carchedi, G. 1977. *On the Economic Identification of Social Classes : A Study of Class Consciousness,*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Fisher, C. S. 1982. *To Dwelling among Friends : Personal Networks in Town and Cit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iddens, A. 1974.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London : Hutchinson.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 : 1360 - 1380.

Katznelson, Ira. 1986. "Working - Class Formation : Constructing Cases and Comparison," in Katznelson, Ira, and A. R. Zolberg, (eds.) *Working - Class Formation : Nineteenth-Century Patterns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3 - 41.

_____1992. *Marxism and the City,* Oxford : The Clarendon Press.

Katznelson, Ira, and A. R. Zolberg, (eds.). 1986. *Working - Class Formation : Nineteenth-Century Patterns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Lin, Nan. 1982. "Social Resources and Instrumental Action," in Peter V. Marsden and Nan Lin (eds.)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Beverly Hills, Calif. : Sage.

_____1990. "Social Resources and Social Mobility : A Structural Theory of Status Attainment," in Roland Breiger (ed.) *Social Mobility and Social Structur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ckwood, David. 1958. *The Blackcoated Worker : A Study in the Class Consciousness*, London : George Allen & Unwin.

Mann, Michael. 1973. *Consciousness and Action among the Western Working Class*, London : The Macmillan Press.

Marsden, P. V. 1987. "Core Discussion Networks of America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 122 - 131.

Parkin, F. 1979. *Marxism and Class Theory : A Bourgeois Critique*,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Poulantzas, N. 1973.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London : NLB.

Przeworski, A. 1985.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ompson, E. P. 1963.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New York : Vintage Books.

Weber, Max. 1978. *Economy and Society :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Vol. 1 & 2*. (edited by Guenter Roth and Claus Wittich), Berkely and Los Angeles, Calif.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right, E. O. 1978. *Class, Crisis and the State*, London : NLB.

_____1985. *Classes*, London : Verso.

Wright, E. O. and Donmoon Cho. 1992. "The Relative Permeability of Class Boundaries to Cross - Class Friendships : A Comparative Study of the United States, Canada, Sweden, and Norwa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 : 85 - 102.

Wright, E. O. and Kwang - Yeong Shin. 1988. "Temporality and Class Analysis : The Effect of Class Structure and Class Trajectory on Class Consciousness in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Sociological Theory*, 6 : 58 - 84.